케냐서 만난 아이들

황주리 화가

몇 년 전 아프리카 땅을 처음 밟았다. 아주 오래 전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모로코를 가본 이외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설레는 아프리카 여행이었다. 아프리카 하면 텔레비전에서 본 광활한 초원 위를 뛰노는 야생동물들이 떠오르지만, 동시에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사는 곳이고, 화려한 색채와 타고난 리듬으로 떨리는 원시의 예술이 살아있는 곳이다. NGO 단체 후원으로 아프리카 재능기부 여행을 떠난 우리 일행 세 사람은 오랜 시간 비행한 끝에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도착했다.

도착 다음날 시내 근처 국립공원에 가서 신기한 새들과 기린 등을 보았다. 사자를 보려면 더 멀리 가야 했다. 그 다음날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작은 땅 '코어'로 가기 위해 나이로비에서 경비행기를 탔다. 그때가 새벽이었는지 저녁이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즈음 다시 읽은 생텍쥐페리의 〈야간비행〉과 코어 여행의 기억이 섞여 제3의 새로운 기억으로 남았는지도 모른다.

로버트 레드포드를 닮은 중년의 미국인 경비행기 조종사는 1986년 시카고에서 나이로비로 여행온 뒤 파일럿 선교사가 되어 20여 년이 넘도록 경비행기를 운전하며 살고 있다 했다. 그는 매일 비행기가 가지 않는 오지로 사람들을 태워준다.

경비행기를 타자마자 그는 친절하게 일행 모두의 안전벨트를 확인하며 직접 매주었다. 비행기 창문을 통해 킬리만자로가 보일 때마다 졸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며 저기 킬리만자로가 있다고 일러주었다. 구름 속의 킬리만자로는 꿈처럼 아름다웠다. 한때는 참 잘 생겼을, 오랜 세월 아프리카의 강한 햇빛에 낡아간 내 또래 미국인 조종사의 얼굴에 비행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은 생텍쥐페리의 얼굴이 겹쳤다.

황무지인 코어에 착륙했을 때, 그건 무척이나 낭만적인 기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가시나무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지대 코어에 도착해서 맨 처음 만난 사람들은 젊은 한국인 목사 부부와 까만 피부에 두 눈이 별처럼 빛나는 코어의 어린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우리 일행이 풀어놓은 크레용과 스케치북으로 그림을 그렸다. 태어나 그림을 처음 그려본다는 아이들도 많았다. 아이들은 낙타와 염소, 사막의 가시나무들을 그렸다.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모든 사물

필자(가운데)는 케냐의 오지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재능기부 봉사를 했다.

을 조그맣게 비슷한 크기로 그리곤 했다. 일렬로 늘어선 낙타와 염소와 가시나무와 사람. 그들이 태어나 바라본 세상의 풍경은 그게 전부였다. 인간은 모두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을 그린다는 걸 그때 실감했다.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깊게 심어준 목사 부부는 목동학교를 운영했다. 코어에서 집집마다 똑똑한 아이들은 양과 염소를 돌보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다. 목동학교는 가시나무 그늘 아래 똑똑한 목동들을 모아놓고 세상사는 일에 긴요한 지식들을 가르쳤다. 이를테면 속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는 법과 암산과 영어로 말하는 법, 세상사는 일에 필요한 지식들을. 젊은 목사가 들려준 이야기 가운데 잊히지 않는 건 그곳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사막을 떠나 도시로 가서 공부를 마친 뒤, 적응하지 못하고 사막으로 되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이라 했다.

마침 일요일이었고, 점심시간이 되자 목사 부부는 뜨거운 태양 아래 아이들을 위해 콩을 삶았다. 삶은 콩을 담은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의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그릇들이 잊히지 않는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삶은 콩 한 사발을 참 맛있게 먹었다. 먹고사는 일이 어려워도 아프리카 전통 노래와 춤을 보여준 학부모들의 옷과 장신구는 너무도 컬러풀하고 아름다워서 눈이 부셨다. 쓰레기 조각들로 누덕누덕 기워 만든 그들의 집도 내 눈에는 설치미술처럼 근사하게 보였다. 사진을 찍자고 말하니 아이들이 우리를 둘러쌌다. 등 뒤에서 아이들 중 누군가 내 양손을 지그시 잡았다. 그 손의 느낌이 얼마나 다정한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내 손을 잡은 아이가 누구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다.

밤이면 별들이 쏟아져 딴 세상으로 변한다는 코어의 사막을 뒤로하고 나이로비로 돌아가는 경비행기에 올랐다. 킬리만자로가 내려다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못내 아쉬웠다. 이곳에 다시 올 수 있을까? 다시 온다 해도 내 손을 잡아준 그 아이는 몰라보게 커 있으리라. 내 생애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여행이었다.

※황주리: 화가. 1957년 서울 출생. 이화여대 서양화과, 홍익대 대학원 미학과, 미국 뉴욕대학 대학원 졸업. 석남미술상, 선미술상 등 수상. 산문집 〈사랑해요 엄마〉 〈날씨가 너무 좋아요〉 〈세월〉 〈땅을 밟고 하는 사랑은 언제나 흙이 묻었다〉와 그림소설 〈그리고 사랑은〉 출간. 기발한 상상력과 눈부신 색채로 가득한 그의 그림은 강렬한 기억을 남긴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문의 옥색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 점역(點譯)하였습니다.